

대학생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asing Library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박 현 영(Hyun-Young Park)*

남 태 우(Tae-Woo Nam)**

목 차

- | | |
|------------------------|---------------------|
| 1. 서 론 | 3.2 연구가설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연구대상 및 조사변인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4 연구도구 및 교육내용 |
| 2. 이론적 배경 | 4. 자료 분석 |
| 2.1 도서관불안의 개념 | 4.1 표본 및 자료의 기술적 특성 |
| 2.2 도서관불안 완화를 위한 이용 교육 | 4.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
| 3. 연구 설계 | 4.3 가설 검증 |
| 3.1 연구모형 | 5. 결 론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양과목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5주간 실시한 후, 대학생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와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교육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서관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H대학의 1학년 교양필수교과를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도서관이용교육 내용은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이해, 도서관 자료의 조직, 학술정보의 종류 및 이용방법, 자료의 인용 및 참고문헌 기술,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2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조사는 교육 첫주인 2006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교육 마지막 주에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수는 92건이었다. 측정도구는 한국형도서관불안척도(K-LAS)를 사용하였다. 분석도구는 대응표본 T-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불안도는 도서관불안의 6요소 중에서 4개 요소가 교육이전보다 교육이후에 완화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교육 효과는 도서관불안의 6요소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five weeks' education on library use as a regular cultural subject at the target on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in their library anxiety between pre-education and post-education as well as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effectiveness based on the frequency of library use. The result intends to present the result for basic materials which are necessary for promoting the education on library use. The object of study selected the university freshmen, located in Gyeonggi-do, taking a lesson of cultural essential subjects. The education contents on library use were the understanding of library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 structure of library materials, the kind and use of academic information, the citation of materials, the description of bibliography, and the copyright in a library. The study methods applied in the study, were literature researches and two-times' questionnaire surveys in the first week of the education and the last week of that. Total 92 materials were applied for this study. This study performed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As a result, four factors of six ones on library anxiety were selected in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after performing an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s' library use.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education effectiveness based on university students' library use frequency was excluded in the course of hypothesis verification on six factors of library anxiety.

키워드: 도서관불안, 한국형도서관불안척도, 도서관이용교육, 이용자심리연구, Library Anxiety, K-LAS

* 협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운영과장(hypark@uhs.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16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문·연구 활동은 인지과정, 문제해결과정, 정보탐색과정 등의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학도서관은 연구자들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이러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관이다. 도서관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고, 적합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도서관불안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정보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는 1986년에 Mellon에 의해 6,000명의 학생이 참여한 2년간의 질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Bostick(1992)에 의해 도서관불안척도(LAS, Library Anxiety Scales)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도서관불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 및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불안심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불안은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가 Van Kampen(2002)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박현영(2006)에 의해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가 개발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는 저조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 교양과

목에서의 도서관이용교육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양과목 수업에 도서관이용교육을 5주간 수행하고, 이용자의 도서관불안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교육전과 교육후의 도서관불안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정규 교양과목을 통한 도서관이용교육의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대학의 정규교과로 수행되는 도서관이용교육이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도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이용교육과 도서관불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 및 도서관불안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도서관이용교육을 5주 동안 수강하도록 하고,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교육전과 교육후에 수강학생들의 도서관불안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교육 외에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기질적 특성을 제외한 상황적, 환경적 요인들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경기도 H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개설된 교양과목 시간에 정규 교과목 형태의 도서관이용교육을 5주간 수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이해, 도서관 자료의 조직, 학술정보의 종류 및 이용방법, 자료의 인용 및 참고문헌,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14.0K의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불안의 개념

도서관불안의 개념은 1986년에 Mellon에 의해 6,000명의 학생이 참여한 2년간의 질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75%에서 85% 사이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불안, 두려움, 압도당하는 기분, 해매는 느낌, 무기력, 혼동, 공포 등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¹⁾ 이후, 1992년에 Bostick에 의해 처음으로 도서관불안척도(LAS)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도서관불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관심

증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박현영(2006)에 의해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가 개발되는데 이르렀다. K-LAS는 도서관불안의 6요소, 즉, 물리적·환경적 요소, 도서관정보 이용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²⁾

도서관불안의 발생은 다른 학문관련 불안과 마찬가지로,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밝혔다.³⁾ 다음의 <그림 1>은 도서관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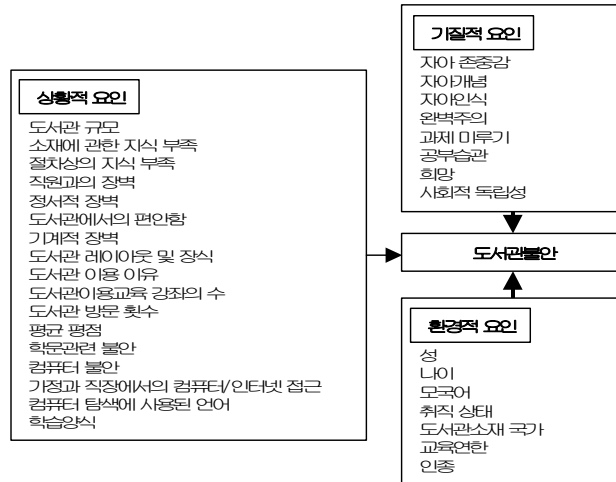
<그림 1>에서, 기질적 요인이란 개인의 내재적 요인을 의미하며, 상황적 요인은 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외재적 요인으로 개인의 인구분포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들 3가지 요인들은 전반적인 도서관불안을 결정하는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불안의 유형은 크게 특성불안(trait anxiety)과 상태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분한다. 특성불안은 개인의 인성이며,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상태로써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상태불안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불안 상태이다. 컴퓨터 불안, 연구조사 불안, 통계학 불안, 수학불안, 쓰기 불안, 외국어 불안, 시험불안 등의 학문관련 불안은 시간과 상황에 해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태불안에 해당된다. 도서관불안 역시 상태불안의 경

1) Constance A. Mellon.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7: 160-166.

2) 박현영. 2006.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3) A. J. Onwuegbuzie, Q. G. Jiao, & S. L. Bostick.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Oxford, The Scarecrow Press, Inc., 2004. p.41.



출처: A. J. Onwuegbuzie et al.,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004, p.41.

〈그림 1〉 도서관불안 요인의 개념도

향을 보이는 학문관련 불안이다.⁴⁾ 학문 과정의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도서관불안과 유사한 것은 시험불안과 컴퓨터 불안을 들 수 있다. 시험과 컴퓨터 이용은 도서관 이용과 마찬가지로 학업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만큼 어느 시점에서든지 불안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이들 학문관련 불안은 그 상황에 달려 있거나, 예상하는 동안부터 발생하는 불안일 뿐만 아니라, 상호연관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불안은 역시 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불안이며, 다른 학문 불안과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2.2 도서관불안 완화를 위한 이용 교육

Wilson과 Tauber(1945)는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1) 지식과 사상의 보존, 2) 교육, 3) 연구, 4) 출판, 5) 사회봉사, 그리고 6) 연구결과의 사회적 적용과 해석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대학도서관의 가르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⁵⁾ 또한, 대학도서관은 대학과정 전체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써, 이 목적을 향상화, 구체화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은 “이용자교육”을 “도서관 서비스, 시설, 조직, 자료 및 자료검색 방법

4) T. F. Mech & C. I. Brooks. Library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7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Pittsburgh, March 30-April 2(1995). p.175.

5)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 Its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p.9. [재인용, 장덕현, p.5.]

6) 김정근. 1995.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한울, p.149.

에 대하여 이용자를 교육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문헌정보학용어집(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User Education”이라 칭하며, 이용자에게 도서관 봉사, 시설, 조직과 도서관 자료, 그리고 검색 전략에 관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참고자료 사용법, 도서관이용법, 서지교육(BI) 등의 관련 개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⁷⁾ 이러한 여러 차이와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도서관이용교육은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주로 서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 BI), 도서관 이용자교육/지도(library user education/instruction), 또는 도서관 지도(library instruction) 등이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⁸⁾ 즉, 대학에서의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을 능동적인 도서관 이용자들로 교육시키는 과정을 총칭한다.⁹⁾

최초의 도서관이용교육은 1820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한 사서가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희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던 것을 최초의 도서관이용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⁰⁾ 한

편, 미국에 앞선 17세기에 독일에서 교수학습 방법과 도서관이용법에 대한 강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¹¹⁾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에 최초로 서강대학교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수행되었다.¹²⁾ 최근, 국내 대학에서의 도서관이용교육은 정보검색교육, 학술정보 이용교육, 도서관이용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이용안내 책자 및 도서관 견학
- 2) 학기초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규모 그룹교육
- 3) 대학원생 또는 교수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 소규모 그룹 교육¹³⁾
- 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불안 연구에 있어서, Jiao 등(1996)은 도서관불안의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용자의 나이, 성별, 학습 기간, 모국어, 평점, 취업상태, 도서관 방문횟수, 도서관이용 목적 등의 8가지 변수가 도서관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¹⁴⁾ 또한,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해소 방안

7) Heartsill Young ed,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p.237.[장덕현 재인용].

8) 장덕현. 200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도서관·정보학회』, 33(1): 1-20.

9) 장덕현. 상계서, p.6.

10) 김병주. 1998.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 연구. 『한국비블리아』 9: 137-152.

11) Gisela Ewert. 1986. "The Beginning of Instruction in Library Use: Selected German Examples from the 17th to 19th Centuries." *Research Strategies*, 4: 177-184.[재인용 김병주, p.139]

12) 장덕현. 상계서, p.8.

13) 도서관메일링리스트(<http://delias.dongueui.ac.kr/ mailing>). [재인용 장덕현. 상계서, p.8]

14) Q. G. Jiao, A. J. Onwuegbuzie, & A. Lichtenstein.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8, no.2. pp.151-163.

연구에서는 정보탐색과정을 포함한 도서관이용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Kracker(2002)는 학생들이 도서관이용교육시간에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모델에 대해 수강할 경우 도서관불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30분 동안 정보탐색과정 모델을 배운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불안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외부적 환경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학업준비를 위한 도서관 정보자료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정보탐색과정을 포함한 도서관이용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 남태우와 박현영(2005)은 우리나라 대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들에게 47항목의 부정적인 도서관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¹⁶⁾ 이와 같이, 학문과정동안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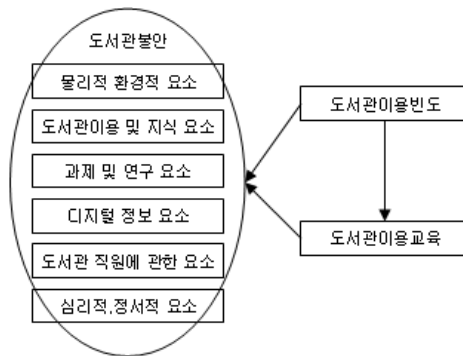
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정규교과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을 실시한 후에 도서관불안도를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도서관이용교육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15) J. Kracker, "Research anxiety and students' perceptions of research : An experiment. Part I. Effect of teaching Kuhlthau's ISP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2002). pp.282-294.

16)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7(1): 151-168.

3.2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교양과목에서 수행한 도서관 이용교육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대가설과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I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의 도서관 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1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서관의 물리적·환경적 불안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2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서관 정보의 이용 및 지식에 대한 불안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3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서관에서의 과제 및 연구에 대한 불안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4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안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5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서관 직원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6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빈도가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불안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II-1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

의 물리적·환경적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II-2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 정보 이용 및 지식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II-3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과제 및 연구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II-4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II-5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 직원에 관한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II-6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3.3 연구대상 및 조사변인

3.3.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H대학에서 5주간의 도서관이용교육을 수강한 1학년 92명의 학생들이었다. 2006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1학년 교양필수과목 담당교수에게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취지와 수업계획을 안내하여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학과는 11개 학과이었으나, 수업시간의 중복으로 3차로 나누어 교육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1차 교육의 3개 학과만이 수행하였다. 이는 최대한 동일한 상황적, 환경적 조건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1차 교육 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5주간의 교육을 수행한 이후로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의 첫 수업시간 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섯 번째 수업을 마친 후에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이 대응표본 T-검정이기 때문에, 대응쌍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지에 학번을 기재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방어기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번 기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응답 및 분석 설문지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설문지는 3개 학과 수업에서 1차 조사 114부, 2차 조사 112부가 회수되었으나 일부 누락된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

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제외된 설문지로는 1학년 이외의 수강 학생 설문지, 학번이 기재되지 않은 설문지, 응답을 중도에 포기한 설문지, 그리고 1차와 2차의 설문지 중에서 하나의 설문지에만 학번을 기재한 설문지 등이었다.

3.3.2 조사를 위한 변인

조사를 위한 변인은 도서관이용교육과 도서관이용빈도는 독립변인으로, 도서관불안은 종속변인으로 구분하였고,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다음 <표 2>와 같이, 5주간의 도서관이용교육 수행과 주1회 기준으로 한 도서관이용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도서관불안의 6가지 요소, 즉, 도서관의 물리

<표 1> 단과대학별 응답자 및 분석수

번호	단과대학	응답수		분석수	비고
		1차 설문	2차 설문		
1	인문대학	41	39	37	
3	경영대학	41	43	34	
4	예술대학	24	22	21	
5	1학년 이외 학년	8	8	0	
합계		114	112	92	

<표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변인	변수군	변수
독립변인	도서관이용교육	5주간 도서관이용교육 수강 학생
	도서관이용빈도	주1회 이상 이용 학생 주1회 미만 이용 학생
종속변인	도서관불안	물리적·환경적 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

적·환경적 요소, 도서관정보의 이용 및 지식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4 연구도구 및 교육내용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도구는 한국형도서관불안척도(K-LAS)이며, 도서관이용교육은 정규 교양과목 수업에서 5주 동안 시행되었다.

3.4.1 연구도구

이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한국형도서관불안척도(K-LAS, Korean Library Anxiety Scales)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설문지 구성은 이용자의 상황적, 환경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 설정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K-LAS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① 아주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3.4.2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도서관이용교육은 한 주에 50분간 5주 동안 수행되었다. 각 시간별 강의주제는 1차시는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이해, 2차시는 도서관 자료의 조직, 3차시는 학술정보의 종류 및 이용방법, 4차시는 자료의 인용 및 참고문헌 기술, 5차시에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에 대하여 강의하였으며, 다음 <표 4>와 같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요소명	문항수	문항내용	척도
일반적 사항	인적사항	6	학번, 성별, 학년, 전공, 이용빈도, 교육경험여부	명목척도
요소Ⅰ	물리적·환경적	6	건물이나 공간에 의한 불안	Likert 5점 척도
요소Ⅱ	도서관이용 및 지식	9	도서관 및 정보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요소Ⅲ	과제 및 연구	6	과제나 연구의 수행과정동안 발생하는 불안	
요소Ⅳ	디지털 정보	7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이용에 대한 불안	
요소Ⅴ	도서관 직원	5	도서관 직원에 대한 불안	
요소Ⅵ	심리적·정서적	7	개인의 정서적 상태	
계	6	40		

<표 4> 도서관이용교육 내용

강의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이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이해
2강	도서관 자료의 조직	학문분류와 도서관분류, 목록 작성 및 검색
3강	학술정보의 종류 및 이용방법	학술매체별 이용방법 및 상호대차 안내
4강	자료의 인용 및 참고문헌 기술	과제 작성시 자료의 인용 및 인용기술 방법
5강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

〈표 4〉의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은 도서관의 기능 및 도서관직원의 역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디지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학술정보 소개 및 이용방법, 과제 및 연구수행시 활용되는 자료의 인용방법과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범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4.1 표본 및 자료의 기술적 특성

4.1.1 인구통계학적 구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40.2%(37명), 여학생 59.8%(55명)로 나타났다.

상기 〈표 5〉와 같이, 단과대학별 구성비는 인문대학이 40.2%(37명)로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고, 예술대학이 22.8%(21명)로 가장 적은 학생이 참여하였다.

4.1.2 본 수업 이전의 교육 경험

본 수업 수강 이전에 받았던 정보이용교육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학생은 10.9%(10명), 교육경험이 '없다'로 응답한 학생이 89.1%(82명)이었다.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경험 형태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다음의 〈표 6〉과 같이,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교육형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였다. 이 학생들의 경험형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서관이용안내를 답한 것이었다. 다시,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소개된 도서관이용안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 바, 모든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서관이용안내를 들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의 경험여부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과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 모두가 이번 교육 이전에는 교육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구분하였다.

〈표 5〉 인구통계학적 구성

학년	성별	표본수	구성비(%)	전공	표본수	구성비(%)
1	남	37	40.2	인문대학	37	40.2
				경영대학	34	37.0
	여	55	59.8	예술대학	21	22.8
합계		92	100.0	합계	92	100.0

〈표 6〉 도서관이용교육 경험 여부

변수	구분		표본수	구성비(%)
	경험여부	경험형태		
도서관이용교육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	10.9
	없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82	89.1
합계			92	100.0

4.1.3 도서관이용빈도

이 연구의 이용교육에 참여한 이용자의 도서관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주2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 32.6%(30명)이었으며, 주1회 정도 이용하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52.2%(48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도서관이용빈도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도서관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이용 빈도에 따른 도서관이용교육 효과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4.1.4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이 항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의 수행전과 수행후에 대하여, 이용자의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요소별 기술통계량을 알아보았다. 척도의 구성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의 평균값을 분석해 보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은 A집단에서 요소 I 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이 전체 요소에서 교육전보다 교육후에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전보다 교육후에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 최소값과 최대값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점수가 모든 요소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4.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이 절에서는 교육 전과 후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각 변수의 쌍에 대한 상관계수를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대부분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이전과 이후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사전과 사후의 문항별 상관관계분석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4.3 가설 검증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사용하였으며, 가설II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은 한 집단을 가지고 어떠한 요소에 의해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여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표본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짝검증이라고도 한다. 검증방법은 사전과 사후 검사에 나타나는 두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차이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날수록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독립표본 T-검정은 독립인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검증이다. 측정자료는 K-LAS를 이용하여 교육전과 교육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7> 도서관 이용 빈도

이용횟수	빈도	비율	구분비율	구분	집단명
주2회 이상	30	32.6	52.2	높은 학생	A
주1회 정도	18	19.6			
월2회 정도	18	19.6	47.8	낮은 학생	B
월1회 정도	11	12.0			
월1회 이하	15	16.3			
합계	92	100.0	100.0		

〈표 8〉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요 소	이용빈도(주1회기준)	설문시기(교육)	빈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요소 I	A	전	48	3.75	.52	2.67	5.00
		후	48	3.70	.72	1.00	5.00
	B	전	44	3.71	.52	2.83	5.00
		후	44	3.77	.67	2.00	5.00
요소 II	A	전	48	3.28	.43	1.78	4.78
		후	48	3.57	.79	1.78	5.00
	B	전	44	3.08	.64	1.56	4.22
		후	44	3.43	.69	1.89	4.89
요소 III	A	전	48	3.16	.60	2.00	4.83
		후	48	3.30	.73	2.00	5.00
	B	전	44	2.95	.53	1.33	4.50
		후	44	3.30	.55	1.83	4.83
요소 IV	A	전	48	3.19	.63	2.00	4.57
		후	48	3.31	.71	2.14	5.00
	B	전	44	2.86	.60	1.00	3.71
		후	44	3.23	.64	1.71	4.86
요소 V	A	전	48	3.30	.71	1.60	4.40
		후	48	3.29	.77	1.20	5.00
	B	전	44	3.13	.68	1.80	4.80
		후	44	3.48	.84	1.00	4.80
요소 VI	A	전	48	3.59	.59	2.57	4.86
		후	48	3.69	.68	2.29	5.00
	B	전	44	3.29	.60	1.29	4.57
		후	44	3.59	.64	2.57	4.86

〈표 9〉 교육전과 교육후의 문항별 상관관계

요 소	N	상관계수	유의확률	유의성여부
요소 I & I	92	.274	.008	*
요소 II & II	92	.489	.000	*
요소 III & III	92	.598	.000	*
요소 IV & IV	92	.557	.000	*
요소 V & V	91	.412	.000	*
요소 VI & VI	91	.617	.000	*

* 유의수준(α)=0.05에서 유의함

4.3.1 가설 I의 검증,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의 '도서관이용교육은 대학생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도서관이용교육을 독립변인으로, 도서

관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 I-1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물리적·환경적 불안 요소의 문항 1번에서 6번까지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설 I의 대응표본 T-검정 분석

요소	문항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유의성 여부
		평균	표준편차				
요소 I	1-1	.000	.877	.000	91	1.000	
	2-2	.022	1.139	.183	91	.855	
	3-3	-.272	1.319	-1.977	91	.050	*
	4-4	-.022	1.308	-.160	90	.873	
	5-5	.054	1.171	.445	91	.657	
	6-6	.152	.994	1.469	91	.145	
	소 계	-.00870	.65502	-.127	91	.899	
요소 II	7-7	-.087	1.002	-.833	91	.407	
	8-8	-.275	1.383	-1.895	90	.061	
	9-9	-.446	1.370	-3.121	91	.002	*
	10-10	-.462	1.302	-3.381	90	.001	*
	11-11	-.319	1.324	-2.296	90	.024	*
	12-12	-.467	1.253	-3.577	91	.001	*
	13-13	-.178	1.362	-1.238	89	.219	
	14-14	-.435	1.477	-2.823	91	.006	*
	15-15	-.297	1.159	-2.441	90	.017	*
소 계	-.32171	.75944	-4.063	91	.000	*	
요소 III	16-16	-.247	1.090	-2.139	88	.035	*
	17-17	-.130	1.092	-1.146	91	.255	
	18-18	-.505	1.328	-3.631	90	.000	*
	19-19	-.055	1.177	-.445	90	.657	
	20-20	-.217	.947	-2.201	91	.030	*
	21-21	-.311	1.098	-2.688	89	.009	*
	소 계	-.23949	.64388	-3.568	91	.001	*
요소 IV	22-22	-.261	1.068	-2.344	91	.021	*
	23-23	-.457	1.296	-3.379	91	.001	*
	24-24	-.111	1.203	-.876	89	.383	
	25-25	-.133	1.153	-1.097	89	.276	
	26-26	-.233	1.227	-1.803	89	.075	
	27-27	-.264	1.146	-2.152	86	.034	*
	28-28	-.264	1.349	-1.866	90	.065	
소 계	-.24172	.78782	-2.943	91	.004	*	
요소 V	29-29	.144	1.700	.806	89	.422	
	30-30	-.121	1.153	-1.000	90	.320	
	31-31	-.121	1.298	-.888	90	.377	
	32-32	-.378	1.259	-2.846	89	.005	*
	33-33	-.352	1.493	-2.246	90	.027	*
	소 계	-.17143	.94731	-1.726	90	.088	
요소 VI	34-34	-.213	1.247	-1.614	88	.110	
	35-35	-.216	1.236	-1.639	87	.105	
	36-36	-.242	.923	-2.498	90	.014	*
	37-37	-.363	1.410	-2.453	90	.016	*
	38-38	-.176	1.189	-1.411	90	.162	
	39-39	-.176	1.050	-1.598	90	.114	
	40-40	-.066	1.191	-.528	90	.599	
소 계	-.20670	.65037	-3.032	90	.003	*	

*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함

상기의 <표 10>을 분석해 보면, 가설 I-1의 도서관의 물리적·환경적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차이가 문항 3번과 4번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문항 3번만이 도서관이용교육 후가 교육 전보다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I-1은 기각되었다.

가설 I-2의 도서관정보 이용 및 지식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6개 문항이 도서관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7번에서 문항 15번까지의 9문항 중에서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의 6문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I-2는 채택되었다.

가설 I-3의 과제 및 연구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평균 대응차를 볼 때, 4개 문항이 도서관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6번에서 문항 21번까지 6문항 중에서 16번, 18번, 20번, 21번 문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I-3은 채택되었다.

가설 I-4의 디지털 정보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3개 문항이 도서관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2번에서 문항 28번까지의 7문항 중에서 22번, 23번, 27의 3문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므로, 가설 I-4는 채택되었다.

가설 I-5의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2개 문항이 도서관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9번에서 문항 33번까지의 5문항 중에서 32번, 33번 문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요소별 차이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I-5는 기각되었다.

가설 I-6의 심리적·정서적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2개 문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34번에서 문항 40번까지의 7문항 중에서 36번, 37번 문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I-6은 채택되었다.

4.3.2 가설 II,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빈도가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불안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II의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빈도가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1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을 “A”집단으로 하고, 주1회 미만 이용하는 학생을 “B”집단으로 하여 각각을 검증하였다. A집단은 48명이었으며, B집단은 4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가설 I의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항 1에서 6번까지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교육전과 교육후의 독립표본 T-검정

요 소	문 항	A 집단(48명)			B 집단(44명)			이용빈도에 따른 교육효과 차이	
		평 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평 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평균차	유의확률
요소 I	1-1	.063	.783	.583	-.068	.974	.645	0.131	0.478
	2-2	.021	1.101	.896	.023	1.191	.900	-0.002	0.994
	3-3	-.167	1.310	.383	-.386	1.333	.061	0.220	0.428
	4-4	.146	1.353	.459	-.209	1.245	.277	0.355	0.198
	5-5	.000	1.167	1.000	.114	1.185	.528	-0.114	0.644
	6-6	.208	.922	.124	.091	1.074	.578	0.117	0.574
	계	.04514	.68825	.652	-.06742	.61926	.474	0.120	0.385
요소 II	7-7	.000	1.031	1.000	-.182	.971	.221	0.182	0.387
	8-8	-.125	1.438	.550	-.442	1.315	.033*	0.317	0.278
	9-9	-.292	1.398	.155	-.614	1.333	.004*	0.322	0.262
	10-10	-.542	1.110	.001*	-.372	1.496	.110	-0.170	0.538
	11-11	-.396	1.047	.012*	-.233	1.586	.342	-0.163	0.560
	12-12	-.729	1.162	.000*	-.182	1.299	.358	-0.547	0.036*
	13-13	-.277	1.330	.161	-.070	1.404	.746	-0.207	0.475
	14-14	-.292	1.352	.142	-.591	1.604	.019*	0.299	0.335
	15-15	-.043	.806	.719	-.568	1.404	.010*	0.526	0.033*
계	-.29485	.71199	.006*	-.35101	.81535	.007*	0.073	0.651	
요소 III	16-16	-.087	1.050	.577	-.419	1.118	.018*	0.332	0.153
	17-17	.167	1.038	.272	-.455	1.066	.007*	0.621	0.006*
	18-18	-.438	1.270	.021*	-.581	1.401	.009*	0.144	0.609
	19-19	.021	1.194	.904	-.140	1.167	.437	0.160	0.520
	20-20	-.375	.866	.004*	-.045	1.011	.767	-0.330	0.096
	21-21	-.087	.962	.543	-.545	1.190	.004*	0.458	0.047*
	계	-1.13611	.51767	.075	-.35227	.74800	.003*	0.223	0.096
요소 IV	22-22	-.188	1.065	.229	-.341	1.077	.042*	0.153	0.494
	23-23	-.521	1.288	.007*	-.386	1.316	.058	-0.134	0.622
	24-24	.128	1.172	.459	-.372	1.196	.048	0.500	0.048*
	25-25	-.106	.961	.452	-.163	1.344	.431	0.056	0.818
	26-26	-.106	1.047	.490	-.372	1.398	.088	0.266	0.314
	27-27	-.065	1.020	.667	-.488	1.247	.016*	0.423	0.086
	28-28	-.064	1.374	.752	-.477	1.303	.019*	0.413	0.145
	계	-1.12252	.67180	.213	-.37175	.88715	.008*	0.243	0.141
요소 V	29-29	.128	1.727	.615	.163	1.689	.531	-0.035	0.923
	30-30	-.021	1.151	.900	-.227	1.159	.200	0.206	0.397
	31-31	-.021	1.242	.907	-.227	1.362	.274	0.206	0.452
	32-32	-.130	1.067	.411	-.636	1.399	.004*	0.506	0.050*
	33-33	.043	1.250	.817	-.773	1.626	.003*	0.815	0.009*
	계	.00000	.81933	1.000	-.35455	1.04580	.030*	0.343	0.083
요소 VI	34-34	-.283	1.026	.068	-.140	1.457	.533	-0.143	0.592
	35-35	-.023	1.151	.896	-.409	1.300	.043*	0.386	0.144
	36-36	-.255	.871	.050*	-.227	.985	.133	-0.028	0.886
	37-37	-.319	1.253	.087	-.409	1.575	.092	0.090	0.763
	38-38	-.106	.983	.462	-.250	1.383	.237	0.144	0.572
	39-39	.000	.722	1.000	-.364	1.296	.069	0.364	0.106
	40-40	.128	1.279	.497	-.273	1.065	.096	0.400	0.109
계	-1.12006	.54014	.134	-.2992 4	.74581	.011*	0.173	0.206	

* 유의수준(α)=0.05에서 유의함

상기 <표 11>과 같이 도서관불안의 요소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II-1의 물리적·환경적 요소에서는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차이가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소별 차이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설 II-1은 기각되었다.

가설 II-2, 도서관 정보의 이용 및 지식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2개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 II의 6개 문항 중에서 12번과 15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가설 II-2는 기각되었다.

가설 II-3의 과제 및 연구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평균 대응차를 볼 때, 6개 문항 중에서 16번과 21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분석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가설 II-3은 기각되었다.

가설 II-4의 디지털 정보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7개 문항 중에서 24번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가설 II-4는 기각되었다.

가설 II-5의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5개 문항 중에서 32문항과 33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요소별 분석결과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설 II-5는 기각되었다.

가설 II-6의 심리적·정서적 요소는 도서관이용교육 수행전과 수행후의 대응차 평균값을 볼 때, 7개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소별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설 II-6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가설 II의 “도서관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이 빈도가 높은 학생보다 도서관이용교육 수행 후 도서관불안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한 도서관불안 완화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이용교육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다.

5. 결론

대학도서관이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핵심적 활동무대인 만큼,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국내의 대학생들에게 도서관의 규모, 학년,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수행하고, 사전과

사후의 도서관불안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용교육이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서관이용교육과 도서관불안 측정도구 등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가설을 수립하였다. 실제로 도서관이용교육과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요소별 관계와 영향력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수행하고, 사전과 사후의 도서관불안의 차이 검증에서는 전체 40문항 중에서 18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 검증에서는 6개 요소 중에서 4개 요소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즉, 대학생들은 도서관이용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도서관정보의 이용 및 지식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의 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도서관이용교육이 도서관불안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면, 이용자의 이용빈도에 따라 교육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집단간 도서관이용교육의 사전과 사후의 도서관불안 차이 검증에서는 전체 40문항 중에서 7개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소별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도서관이용빈도는 도서관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도서관이용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

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도서관이용교육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도서관이용교육의 역사에 비해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하다. 교육의 형태 또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온라인이용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도서관이용교육에서 수행하는 실제의 교육 내용은 도서관의 위치나 구조와 같은 물리적 측면이나 온라인 검색기법 등의 기능적인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은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고해야 할 정보자료의 탐색과 선정부분이다. 도서관불안 척도에서도 도서관불안의 물리적·환경적 요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볼 때, 대학생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불안을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도서관이용교육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이용교육은 기존의 대학교양교과에서 시행하는 정보활용교육과는 내용상 뚜렷이 구별된다. 기존의 정보활용교육이 기능 위주의 교육이라면 도서관이용교육은 교육철학적 측면까지 포함된다. 정보화 시대에 좋은 정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탐색과정이라는 체득된 기초교육 습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철학적 측면과 정보탐색에 관련한 지식 및 선정에 있어서의 방법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용교육이 대학교육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과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병주. 1998.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 연구. 『한국비블리아』, 9(1): 137-152.
-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7(1): 151-168.
- 박현영. 2006.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덕현. 200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3(1): 1-20.
- 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3(3): 205-221.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Chicago: ALA.
- Ewert, Gisela. 1986. "The Beginning of Instruction in Library Use: Selected German Examples from the 17th to 19th Centuries." *Research Strategies*, 4: 177- 184.
- Jiao, Q. G. Onwuegbuzie, A. J. 2002. "Dimensions of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Library Review*, 51(2).
- Kuhlthau, Carol. C. 1989. "Information Search Process: A Summary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18(1). [online]. [cited 2006. 10. 3]. <http://www.ala.org/aas1/SLMR/slmr_resources/select_kuhlthau2.html>.
- Mellon, Constance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 160-165.
- Onwuegbuzie, A. J. Jiao, Q. G., & Bostick, S. L. 2004.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Oxford: The Scarecrow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aylor, A. J. 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285-290.
- Van Kampen, Doris Judy. 2002. *Library Anxiety,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doctoral use of the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부록〉 Korean Library Anxiety Scales(K-LAS)

번호	문항	요소
1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다.	요소 I 물리적 · 환경적
2	나는 도서관의 규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	
3	도서관의 많은 자료실은 복잡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스럽다.	
4	도서관 내부 공간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갇혀진 기분이다.	
5	도서관은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에 해가 될 것 같다.	
6	나는 도서관의 많은 자료들 속에서 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	
7	나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다.	요소 II 도서관 이용 및 지식
8	나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9	필요한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	도서검색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당황스럽다.	
11	검색결과에서 대출가능한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초조해진다.	
12	같은 주제의 자료들이 서로 다른 서가에 배열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13	도서의 분류기호와 서가배열순서를 보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요소 III 과제 및 연구
14	나는 셀프 기기(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기기들, 예) 무인대출반납기, 복사기 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15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지 못해 긴장하게 된다.	
16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료가 적합한지 확신이 없다.	
17	도서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때때로 적합한 정보를 놓칠 것이다.	
18	책은 많이 있으나 어떤 책을 봐야할지 선택의 손이 가지 않는다.	
19	도서관 이용을 통한 과제 수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요소 IV 디지털 정보
20	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할 때 유능하다고 느낀다.	
21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를 요약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	
22	나는 도서검색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한다.	
23	검색결과에 책의 내용에 관한 도움말이 없어 막막하다.	
24	도서관의 도서검색은 인터넷 지식검색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25	나는 온라인 학술DB를 이용하려면 긴장된다.	요소 V 도서관 직원
26	나는 집에서 도서관의 온라인 학술DB에 접근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27	도서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는 것 같다.	
28	나는 온라인 학술DB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다.	
29	나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다.	
30	도서관 직원들은 나를 도와줄 시간이 없다.	
31	만일 내가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으면 나를 도와줄 직원이 없다.	요소 VI 심리적 · 정서적
32	나는 사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3	나는 도서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4	나는 자료를 찾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찾았을 것 같아 조금해진다.	
35	정보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고 포기하게 된다.	
36	도서관은 나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곳이다.	
37	도서관의 분위기는 웬지 답답하고 부담스럽다.	요소 VI 심리적 · 정서적
38	책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다.	
39	나는 도서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이용을 피한다.	
40	도서관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여 위축된다.	
총	40	6

